

COMMENTARY - Ezekiel

에스겔서의 역사적 배경 설명

에스겔서의 저자로 알려진 에스겔은 원래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 부시(Buzi)의 아들로, 그 자신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예레미야 나 다니엘과 동시대 인물로서, 이스라엘 역사의 최대 격동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신흥 바벨론이 유다를 침범해서 BC 597년에 1만 명의 유다인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는데 그중에 에스겔로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성전이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의 숙소이고 현주소라고 믿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거룩한 성전은 성에 둘러 싸여 잘 보전되어 왔고, 예루살렘을 “황금도시” 혹은 “하나님의 도성“ ” Golden city" 혹은 "City of God"으로 부르며 하늘과 땅이 서로 맞나는 곳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막강한 수와 능력을 갖춘 바벨론 군대의 침략을 받고 도성안의 건물들은 땅에까지 면도하듯이 무너뜨렸다 했고, 집들은 모두 불에 타고, 하나님의 숙소인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파괴되고, 마지막으로 남은 유다인들을 모두 바벨론으로 2차 포로로 잡아가지 유다는 완전히 끝장나 버렸던 것입니다. 유다 온 나라가 몽땅 잡혀가고, 바벨론은 유다 땅에다 야외를 전혀 모르는 외국인을 데려다 채워 넣었습니다. 이 땅은 더 이상 유다인들의 땅이 아니고, 아부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요셉의 후손들은 다시 한번 이 지구상에서 집없이 떠도는 이방인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유다인들이 자기들 고향 밖에서는 모세의 율법이 행해질 수 없다고 믿으니 율법도 의미 없이 되어 버렸고, 절기들도 예루살렘성 환경 안에서 행해질 수 있는 것들이어서 그것들도 무의미하게 되고 유다인들이 예전에 가치를 두었던 모든 것들, 그들의 존재에 의미가 있었던 모든 것들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돌무더기로 변했고, 하나님의 숙소인 성전도 땅에 재가 되었고, 나라가 죽은 것처럼 그들의 하나님도 죽었고, 제사장직, 그들의 거룩한 풍습들, 그들의 신조문, 유다인들의 모든 사회의 질서, 구조까지 모두 죽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 라는 절망을 안고 유다인들은 바벨론 포로생활에 들어가면서 예전에 알았던 것들, 예전에 지키던 것들, 가치를 두었던 것들을 버리고, 잃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귀향은 요원하고 불가능한 것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들은 70년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수의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당했으니 이제는 끝장이라고 생각했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여호와와 예루살렘에서만 큰소리치는 신으로 자기들이 바벨론에게 패한 것은 결국 여호와가 바벨론 신에게 패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바벨론 포로생활은 곧 나라와, 하나님과 성전모두를 잃은 것이니 실망하고, 더욱 마음이 강퍅해져서 끝없이 죄의 늪으로 빠져 들었다고 역사가들은 기록합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긴긴 광야 길을 못 견디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예배하고 야외를 배신했던 것과 같은 죄를 반복했던 것입니다.

본문해석

오늘우리들의 본문인 겔 36:24-26 은 에스겔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에서 자신들의 끊임없는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유대를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 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유대인들을 격려하는 예언을 하도록 그때 함께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에스겔을 시켜 명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유대 인들을 위해서라기보다 유다가 이방인 나라에 잡혀가 더럽힌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이름과 명성 (reputation) 의 회복을 위해서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유대 사람들이 회개하고 솔선할 때까지를 기다릴 수 없어 하나님 편에서 당신의 명예회복을 위해 솔선하시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포로 귀환이 내포한 깊은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유대를 구원하실 계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두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겠다” 하시니 이는 두 번째 출애굽 이 눈앞에 전개되는 것과 같은 사건입니다. 야외는 유대를 모으고, 포로들을 본국으로 소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서 야외 신이 바벨론 신에게 졌다고 할 정도로 땅에 떨어진 그의 명예를 회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고향 땅을 밟아 보는 일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그들에게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약속입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죽은자들을 다시 살려주마 는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둘째로, 그렇게 고향으로 데려다가 하나님을 포기한죄와 이방인들의 신과 풍습을 따른 불결함까지 “맑은 물로 정결케 하고, 새 영을 너의 속에두고, 새 마음을 줄것이라”

여기서 “새로움“은 이전 것들과 단절된 새로움을 말합니다.

“마음과 영”은 사람의 어느 일부에 대한 지칭이 아니고, 사람의 **전인격을 말함인데** 그들의 더러운 행위와 굳은 마음과 무법한 의식구조를 완전히 제거하고 새로 개조된 인성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죄까지 씻어 깨끗하게 해서 귀향시켜 주시겠다니 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셋째로, 이렇게 깨끗이 정화시킨 후에, 돌같이 굳은 마음을 살갓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갈아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넣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영어로는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A new heart I will give you, and a new spirit I will put within you;

한국말보다 그 뜻이 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자기 백성을 징벌했다가 그냥 다시 회복시켜 주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오는 일은 유다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심장으로 바꿔 넣어 주는, 즉 심장 이식수술을 겸하시는 일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